

여기는 채소, 저기는 과일, 잘 키워보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탄생하는 또 다른 나

소셜네트워크에는 특별한 내가 있다. 이게 다 허투루 만든 모습이 아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살 수도 있기에 오늘도 걱정과 고민, 끝이 없다. 기술과 예술 사이에서 나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세 번째 모습은 바로 SNS다.

현실계: "내가 진짜야. 만져봐!"
가상계: "내가 진짜야. 팔로우 해!"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다. 1999년 제대를 하고 보니 인터넷 세상이 열렸다. 물론 '지직지직' 하며 외계인 소리를 내는 모뎀과 동고동락하는 느린 속도였지만 빠른 속도로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오지 않은 이상, 우선은 신기할 뿐이었다. 그래서 나도 여느 친구들처럼 인터넷의 바다에 빠졌다. 풍덩! 세기말의 분위기 속에 두 개의 양대 산맥이 탄생했다. 우선 '싸이월드!' '사이좋은 세상'을 표방하며 미니 홈페이지에서는 각자 내방을 꾸리고 친구들을 맞이했다. 다음, '아이러브스쿨!' '동창 만나기를 유도하며 학교 커뮤니티에서 여러 모임을 만들어 친구들을 만났다. 개인적으로 1999년 9월 9일 저녁 7시는 초등학교 6학년 시절부터 기다렸던 특별한 날이다. 6학년 때 산수특기부에 등록했는데, 미모의 담당 선생님께서 1999년 9월 9일 저녁 9시에 세상이 망한다는 농을 던지시며 저녁 7시에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만나 '마지막 만찬'을 하라고 제안하신 것이다. 그래서 진짜 나갔다. 다행히 초등학교 5~6학년을 함께 다니고 같은 특기부였던 추억의 여학생과 조우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다른 이들을 기다리다 결국에는 둘이서만 오붓하게 저녁 먹고 헤어졌다. '아이러브스쿨'은 그 해 9월에 시작했다. 즉, 세상은 망하지 않았고 친구들의 범위는 한껏 넓어졌다. 내 친구, 다 모예! 그런데 당시에 양대 산맥, 한계가 있었다. 우선 인터넷 속도가 느렸다. 그래서 은근 귀찮아졌다. 다음, 당시에는 스마트폰과 카톡 같은 천상의 콤비(단짝)가 없었다. 그래서 은근 소원해졌다. 다음, 친구를 만드는 데 요즘의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같은 일방 팔로우 개념이 아니었다. 그래서 은근 보수적이었다. 물론 본격적인 SNS 시대가 처음 개막하다 보니 기술력과 경영 마인드 등, 내부적인 문제도 컸다. 그래서 서서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친구들아, 다음 생에!

본격적인 1인 방송국 시대의 개막
점차 더 나은 기술력과 유연한 경영으로 승승장구하는 글로벌 기업이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2004년 '페이스북', 2005년 '유튜브', 2006년 '트위터', 2010년 '인스타그램', 2011년 '위챗', 2016년 '틱톡' 등, 여러 SNS가 유행하며 기호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채널을 선택하고 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동안 나는 실제 '임상반'에 충실했다. 예컨대, 아직까지도 내 아이디는 내 이름. 그리고 익명 게시판에 글을 남겨본 기억도 거의 없다. 그리고 2008년부터 '페이스북', 2015년부터 '인스타그램'을 쓰기 시작했다. 물론 내 이름으로. 그러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나름대로 발동이 걸렸다. 자연스럽게 온라인 친구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뉴스피드로 인해 그들의 세세한 일상까지도 내 마음속으로 훑 들어오니 세상이 더욱 넓어졌다. 그리고 보니 다들 1인 방송국 사장님 아닌가? 다들 자기 삶을 스스로의 방송 방침에 따라 세상으로 송출하느라 인생 더 바빠진 모양. 그런데 과연 그 방송은 실제의 모방일까? 물론 그런 경우도, 혹은 아닌 경우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내 관심은 후자, 즉 방송이 또 다른 실체가 되는 경우에 쏠린다. 이를테면 직장에서의 내 삶이 나의 중요한 부분인듯, '인스타그램'을 소위 '먹스타그램'으로 만들어 끊임없이 식탐을 자극하는 활동도 나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누가 전자가 후자보다 감히 가치 있다 말할 수 있는가? 예컨대, 후자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 전자 자격으로 평가받는다 면 세상 참 각박하다. 굳이 본캐(본래 캐릭터)와 부캐(부수적인 캐릭터)로 나누지 말고 후자는 그냥 후자로 봐줘, 아니, 그냥 딴 사람이라고! 하루는 학생들에게 물어봤다. '인스타그램' 상에서

부캐가 몇 명이나고, 역시나 많았다. 만약에 깔끔하게 채널을 나누려면 우선 내 안에 있는 작은 아이들의 성격을 정확히 꿰뚫어야 한다. 다음, 채널 별로 방송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다음, 열심히 관련 자료를 게시해야 한다. 나아가, 관심사를 공유하는 친구들과 교류해야 한다. 이와 같이 파티션을 잘 나누다 보면 부캐의 '부(附)자'는 어느새 '본(本)자'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아, 그냥 다른 인격체가 될 것이다. 여하튼 인격을 분화하려면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기억력은 두말할 것도 없고.

내 욕망이 투사된 거울 자아

어떤 학생이 그랬다. 요즘 누가 '페이스북'을 하나고. 의아했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보다 인기인 모양이다. 내가 한 회사(Meta)에서 둘 다 운영한다 했더니 몰랐다는 학생들도 꽤 있었다. 생각해 보면 참 영악한 경영이다. 상대적으로 '페이스북'은 문자가 중요하다. 즉, 게시물 읽기를 유도한다. 그러다 보면 이전 게시물은 계속 아래로 밀린다. 그래서 여럿을 한눈에 볼 수가 없다. 하지만 게시물을 읽으면 행간의 묘미를 느끼며 모종의 친밀감이 생긴다. 그래서인지 여기서는 친구가 5,000명이 한계다. 그리고 서로 동의해야 친구가 된다. 그리고 보니 온라인치고는 친밀한 작은 동네다. 그래도 이미지를 잔뜩 올리는 등 자신의 감각을 과시하기, 잘만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말만으로 상대방에게 매력을 발산하는 건 어렵기 마련. 반면, '인스타그램'은 이미지가 중요하다. 즉, 이미지 보기를 유도한다. 이를테면 첫 화면에 정사각형으로 이미지를 차곡차곡 쌓아놓으니 여럿을 한눈에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순식간에 상대방에 대한 첫인

상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인지 여기서는 친구가 제한이 없다. 그리고 서로 동의할 필요 없이 내가 팔로우하면 그만이다. 물론 상대방에게 잘릴 수도 있지만 뇌두는 경우가 많은 듯하고. 그리고 보니 상당히 번잡한 도심이다. 그래도 꼼꼼히 맞팔을 하거나 댓글을 남기는 등, '페이스북'과 같이 친구 간의 친밀도를 누리기, 잘만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소중한 친구는 있게 마련. 그런데 상대방을 아직 잘 모르더라도 방문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거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 마치 영화 포스터만 보아도 공포물, 혹은 멜로물 등 장르가 선명히 드러나듯이. 물론 감독 스스로가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소위 종합 선물 세트를 의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한 장르 당 하나의 일관된 경향을 우선적으로 유지하려는 기운이 강하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을 하는 이들의 대표적인 경향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나는 전문가다'와 같은 사업 홍보! 여기서는 자신의 작품, 상품, 경력, 실적 등을 홍보한다. 다음, '나는 센터하다'와 같은 내 삶의 여유! 여기서는 아름다운 풍경과 관조적인 삶의 자세 등을 드러낸다. 다음, '나는 아프다'와 같은 연민 자극! 여기서는 때로는 자학적으로 가감 없이 자신의 바닥을 드러낸다. 다음, '나는 웃지요'와 같은 유머 만점! 여기서는 다양한 웃음거리를 제공한다. 다음, '나는 멋지다'와 같은 감각 충전! 여기서는 독특한 패션 등, 여러 방식으로 자신을 멋지게 치장한다. 다음, '나는 사유한다'와 같은 철학적 논쟁! 여기서는 자신의 사상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한다. 다음, '나는 정치한다'와 같은 당파적 여론! 여기서는 여러 기사를 공유하고 자신의 주장을 피력한다. 물론 이 외에도 분류하자면 끝이 없다. 이와 같이 특정 채널마다 특정 경향이 두드러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만약에 한 사람이 다른 경향도 추구하고 싶다면 다른 채널을 만드는 것이 여러모로 수월하다. 그리고 보면 한 채널은 곧 한 생명이다. 이를 성장, 발달시키는 것은 관리자로서 자신의 몫이고, 결국 특정 채널을 특정 사람의 모든 것이라고 싸잡아 오해할 필요는 없다. 이는 하필이면 그 사람이 기왕이면 그 채널을 통해 보여주고자 의도했던 특정 작품 하나일 뿐이다. 이를테면 남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 찬 채널을 일구는 사람은 거기서만큼은 엄청 세다. 자신에게 절실한 욕망이 거기서 그런 식으로 발현되었기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모든 채널에서 그가 일관된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자기 욕망이 결과적으로 족쇄의 의무감이 되었다면, 혹은 사회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면 이제 그의 책임, 맞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을 비추는 거울은 다양하며 선택 가능하다. 이를테면 훌쩍해지려면 그런 거울 앞에 서자. 혹은, 몽환적으로 보려면 김 서린 거울이 좋겠다. 아름답게 보고 싶으면 뷰티 앱은 어떨까? 맞아, 거울이 남이냐? 거울이 곧 나다. 난 날 못 보니까. 오히려 거울이 날 보잖아? 그리고 지천에 널린 게 거울이다. 즉, 이 거울엔 채소, 저 거울엔 과일, 거울은 내 텃밭. 그래, '페이스북'에서 난 어떤 거울인가? '인스타그램'은? 기다려, 좀 뒤고 볼게. 난 아무래도 멋진 쪽이 좋은 거 같아. 아니, 너도? 다들 왜 이래... 노래방 가면 꼭 자기 멋진 노래만 부르려는 종족이 있더라. 그래, 우리 못 말린다.

글 임상빈 성신여대 서양화과 교수
국내의 여러 기관에서 미술 작품 활동을 활발히 전개 중이다.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하며 미술 교육과 예술 연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자신만의 예술적인 통찰을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심화, 확장된 글쓰기를 지속하고 있다. www.sangbinim.com

